

#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3, 요한계시록 17:7-18:8 짐승과 바빌론의 몰락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23회, 요한계시록 17:7-18:8, 짐승과 바벨론의 멸망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구약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벨론이 사막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이사야서 21장 1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기 17장의 요한의 환상에 대한 배경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모든 매춘부의 어머니라고 불릴 때 그 이미지는 또한 그녀가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산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유혹하는 것들과 땅의 가증한 것들.

다시 한번, 그녀가 지금 재현하고 있는 나라들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그녀의 책임을 상기합니다. 이제 7절에서 요한은 완전히 놀란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반응에는 몇 가지 개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을 때의 대답을 생각하면 왜 놀라십니까? 이 비밀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혹감과 궁금증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요한 자신도 그 환상이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자신이 본 것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어떤 의미에서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천사는 8절부터 시작하여 그의 놀람, 놀람, 어쩌면 매력에 반응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7절부터 시작합니다. 천사는 요한이 본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환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 여섯 구절이지만 환상의 대부분의

특징을 취하고 이제 그 내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에 대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이 부분에서 매우 흥미로운 언어로 짐승을 네 번, 아니면 세 번이나 묘사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두 번 그리고 나중에 11절에서 요한은 짐승의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1장 8절, 4장 8절, 11장 10절과 14절에서 하나님 묘사되는 방식과 직접적인 대조와 패러디를 의미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단지 두 배였습니다.

11장과 14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장 8절과 4장 8절에서 우리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직접적인 패러디로서 짐승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없고 장차 올 자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거나 그의 패배를 명시하고 그를 하늘에서 쫓아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죽음의 타격과 심판과 패배를 암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3장에서 그가 그것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놀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오실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계시록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의 오심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언급과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탄이 오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들어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나니 멸망에 들어가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오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짐승의 오심은 그의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19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짐승의 존재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존재를 명확하게 대조시키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또한 어린양이나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와 멸망으로 가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묵시적인 문학, 특히 예녹 문학에서 발견한 모티브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악마적 존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녹은 한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들어맞을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의 목적은 그가 무저갱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오는 것은 자기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티브나 이 제목에 대한 다음 두 번의 언급에서,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오고 있는 이가 오는 것을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에도 계셨으나 지금은 없으시나 지금은 분명히 보이시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으며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네로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종류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신화를 반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죽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 왕좌를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목 뒤에 그것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배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의 주된 추진력은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이름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나 짐승의 존재도 비슷한 의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형편없는 패러디이고, 그럴 때 그는 자신의 패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그것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짐승이나 천사가 요한에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가 본 짐승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존재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형벌과 멸망은 19장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천사가 짐승의 일곱 머리로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이제 천사는 우리를 위해 그 일곱 머리와 열 뿔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간 까다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일곱 뿔과 일곱 머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묵시론에서 이미지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불일치나 둘 이상의 소스 등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인 이미지의 이미지는 하나 이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일곱 머리는 여기 있는 짐승과 로마를 동시에 식별하는 일곱 언덕이고,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여자는 로마인 여자를 식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곱 머리는 또한 일곱 왕입니다 또는 일곱 명의 통치자.

그리고 천사는 이들 일곱 가운데 다섯은 이미 통치하고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즉, 규칙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한 사람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5명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5명이 떨어졌어요.

현재 하나가 있고,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일곱 머리를 일곱 왕으로 여기고 일곱 왕을 일곱 황제로 삼고, 로마의 일곱 왕을 일곱 황제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일곱 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일곱 명의 통치자, 일곱 명의 왕, 즉 로마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와 데이트하기 위해 이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즉, 요한이 다섯 사람이 떨어졌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황제의 목록을 보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계시록이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고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려운 점은 첫 번째 황제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시작하여 도미티아누스까지 포함해 목록을 살펴보면 12명의 황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번을 통과하면 도미티아누스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날짜에 도달하려면 12명의 목록에 대해 체조를 하거나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Domitian 이후에 더 많은 것이 있지만 Domitian은 이후 날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가 가장 흔한 날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해결해야 할 12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7개 중에서 12개 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데이트할 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Julius Caesar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제안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나중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기 68년과 69년에 세 명의 황제가 연속적으로 통치했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를 목록에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그들을 일곱의 일부로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짧은 짧은 시간 때문에 그것을 건너뛰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제를 어디에서 세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 7인 목록에 누구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온갖 종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목록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숫자 7이 완전성과 완벽함을 위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John이 언급하지 않기 위해 7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요한이 일곱 명의 특정한 문자 그대로의 황제를 언급하기 위해 일곱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일곱 명의 특정 황제가 아니라 일곱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완전한 수와 완전한 통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황제들을 보면, 아마도 그 너머, 음, 분명히 그 너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올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미티아누스가 있다면, 나는

이것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싶지 않지만, 도미티아누스가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이가 바로 일곱 번째입니다.

요한은 로마를 통치하게 될 모든 황제들을 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완전한 통치를 숫자 7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섯 사람은 망했고,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장차 올 것이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이것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공식의 또 다른 아이러니한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섯 명이 쓰러졌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뿐만 아니라 로마제국과 그 황제들의 모든 존재와 삶을 다시 한 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패러디하고 모방하여 묘사한 것입니다. 오는. 그러므로 이 언어는 부분적으로 그 신성한 칭호를 반영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뿐만 아니라 로마제국, 로마제국의 생애, 로마제국의 경간이 반복되고 모방되어 로마의 존재를 패러디한 것이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더욱이, 나는 다섯 가지가 무너졌고, 하나가 있고, 하나가 올 것이라는 이 언어는 단순히 악이 그 길을 가고 있으며 이것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통치의 대부분은 끝났고, 그 통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시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섯 명이 떨어졌다고 말할 때,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올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마지막, 사실 마지막 둘, 이제 있는 자와 장차 올 자도 처음 다섯과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섯 명이 이미 쓰러졌다고 말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일곱 명의 통치자를 합산하여 알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사악한 통치의 대부분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지만 그들 역시 다른 통치자들처럼 처음 다섯 통치자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짐승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상징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는 실제로 짐승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11절에 그 짐승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니 그는 여덟째 왕이니라. 그는 일곱 사람에게 속하였으니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따라서 그 짐승이 일곱 머리, 즉 일곱 황제나 통치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롭지만, 그 짐승은 여덟 번째 머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곱째, 즉 앞으로 나아갈 로마제국 전체에 영감을 주는 동일한 짐승은 역사의 마지막에 올 여덟째 짐승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단순히 짐승이 황제를 통해 그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만큼 짐승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8번째로 올지라도, 로마의 통치는 결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고 심판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제 그들은 로마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징은 10개의 뿔인데, 천사는 이를 10개의 왕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머리는 로마 통치 기간 전체와 짐승과 함께 있는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 후에 짐승은 역사의 마지막에 여덟째 짐승으로 오지만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왕국과 인간 통치는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10개의 뿔을 10개의 왕국으로 식별합니다.

아마도 숫자 7처럼, 우리는 이것을 지도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10개 왕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0은 완전함을 상징하고, 10은 이제 전체 또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은 세계의 국가를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짐승과 함께, 혹은 로마와 함께 통치할 세상.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짐승과 공모하게 될 모든 나라의 총만함과 완전성을 보려고 하는 것만큼 특정한 10개 나라를 식별하려고 노력할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16장과 14장에 나오는 땅의 왕들과 동일시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 개구리를 통해 마지막 전쟁을 위해 모이도록 속이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짐승과 땅의 민족들이 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모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어린 양에 대항하는 전면전에서 동맹국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해석의 처음 몇 구절에서 이미 묘사되고 예측된 것과 같습니다. 즉, 그 짐승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로마 제국과 결탁한 나라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는 데 공모하고 동맹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그들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전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종말의 전투에 대한 또 다른 매우 간단한 언급입니다.

16장 14절에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소개받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마지막 전쟁의 상징인 아마겟돈 전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전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을 16장, 16장의 전투와 동일시한다면 여기에 전쟁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전쟁이 아닙니다.

어린양은 단순히 그의 원수들을 멸하고 패배시키실 뿐입니다. 한 시간의 언어를 참고하세요. 이것은 한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한 시간은 아마도 단지 짧은 시간을 언급하거나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17장의 끝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 해석의 몇 가지 다른 흥미로운 특징. 첫째, 천사가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물, 즉 음녀 바벨론이 앉아 있는 물을 해석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물은 백성과 나라와 무리와 언어를 상징합니다. 그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짐승이나 여자의 바벨론, 즉 모든 나라에 대한 로마의 권위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더 놀라운 것은 짐승과 10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짐승과 여자가 분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가 짐승을 탄 것은 짐승이 악과 혼돈을 상징하며 악마적인 영감을 받아 짐승과 여자가 분리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짐승과 열 나라는 음녀 큰 성 바벨론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암시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 안정과 관행을 위해 그녀에게 의존하고 심지어 그녀와 공모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등지고 그녀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단순히 제국의 자기 파괴적 성격, 죄의 자기 파괴적 성격, 즉 하나님 위에 자신을 세우고 신성한 권위를 오만하며 배타적인 예배와 주권을 주장하는 모든 제국을 나타내는 한 수준일 뿐입니다. 폭력을 통해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에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에게만 그 결과는 자멸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힘을 주고 그 권위와 능력의 기초가 되는 짐승, 그리고 이제 그와 동맹을 맺은 10개 국가가 이제 모두 그것을 파괴하려고 그 짐승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악의. 따라서 지금까지 이 섹션의 요점은 진정한 목시적인 방식으로 바빌론 로마의 진정한 본질을 밝히고 보여주는 것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 숭배적인 경제 행위에 참여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는 매춘부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도 부와 과도한 사치,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에 참여하도록 유혹합니다. 또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신실한 증언을 유지해 온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은 폭력적인 죄입니다.

신의 능력과 신의 권위를 오만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짐승이 아무리 크게 나타나더라도, 그 일곱 황제가 아무리 큰 역할을 하여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바빌론 로마가 심판과 멸망을 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18장에서 왜 멸망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1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로마의 진정한 본질과 그것에 저항하거나 참여하는 데 무엇이 달려 있는지를 폭로함으로써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참여하기로 하면 그들도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 여자와 간음한 죄가 있느니라. 안일하고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나, 우상숭배하고 불경건한 로마 경제 체제와 타협했거나 타협한 자들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

이제 이 장에서는 로마와 공모하는 데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정확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들이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고 순응과 타협을 거부하는데 그토록 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17장은 로마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고혹적인 외모와 매력으로 그 추악한 죄성을 가리고,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실을 가리우고, 나라들로 더불어 간음하게 하는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18장은 4절부터 시작되는데, 그에게서 나오라. 왜? 그 사람은 멸망으로 향하는 음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녀에게서 나오세요. 그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 이제 18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18장은 매춘부 바빌론의 멸망을 더 자세히 밝혀 줍니다. 사실, 이것은 17장 1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 바빌론의 심판을 보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17장 끝에서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17장이 바빌론의 멸망 이유를 보여 준다고 말했지만, 17장은 이미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간략한 암시로 끝났습니다. 나라들과 짐승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에게 대항하여 그를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17장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이제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8장은 결국 구약성경 본문의 일종의 복사판이 됩니다. 우리가 본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의 심판 신탁에서 취한 구약 본문, 두로와 다른 나라들과 관련된 이사야서, 그리고 다른 두 개의 구약 본문이 모두 합쳐져 바빌론, 로마 바빌론을 일종의 묘사로 묘사합니다 심판을 받은 다른 모든 나라들의 체현입니다. 18장을 읽기 전에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점은 18장이 연대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즉, 18장의 사건을 말해야 하는데 18장의 각 부분이 연대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요점은 성도들이 어느 날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피를 갚아 주시고 그들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로 판단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 로마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어느 날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그의 백성을 옹호하고 복수하시는 것임도 보여줍니다.

따라서 18장은 7장의 환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요한이 본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은 여러 그룹이지만 18장의 주요 내용은 청각적입니다. 애도의 형태와 연설의 형태는 거의 모두 구약성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요한은 17장을 본 후 이제 이것을 봅니다.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큰 권세가 있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느니라. 그는 큰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들의

집이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이 되었으며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으니 이는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극한 포도주를 마셨음이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로 말미암아 부를 이루었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범죄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녀가 준 것처럼 그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녀가 행한 일에 대해 두 배로 갚으십시오. 그녀가 자신의 컵에서 두 배의 양을 섞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준 영광과 사치만큼 그녀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을 주십시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랑하며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그녀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기근을 인하여 그가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사르는 연기를 보고 그를 위하여 울며 애통하리라. 그 고통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멀리 서서 부르짖을 것이다. 오, 워, 큰 도시, 오 권능의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땅의 상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녀 때문에 울고 애통할 것입니다. 17장에서 창녀가 입었던 금, 은과 보석과 진주의 물품들과 고운 베와 자색 비단과 홍색 실 곧 창녀의 옷이니라

각종 유자나무와 상아와 값비싼 나무와 청동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기물이니라. 계피와 향료, 향과 몰약과 유향, 포도주와 감람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의 화물, 소와 양, 말과 마차,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화물이니라. 그들은 당신이 갈망하던 열매가 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의 모든 부와 영광이 다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물건을 팔아서 그 여자에게서 부를 얻은 상인들은 멀리 서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울고 애통하며 부르짖을 것이다. 오, 워, 오, 오, 워, 고운 아마포와 자색 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빛나는 큰 도시여.

또 왔습니다. 한 시간 만에 그토록 많은 부가 망쳐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장과 배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과 선원과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이 멀리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이렇게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있었느냐고 외칠 것이다.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부르짖을 것이다. '워, 워,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를 가진 모든 사람이 그 재물로 부자가 되었던 곳이다. 한 시간 만에 그녀는 파멸당했습니다. 그녀를 기뻐하세요, 오, 천국이여.

기뻐하십시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그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만한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토록 심하게 무너져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수금 연주자와 음악가, 피리 부는 사람과 나팔 부는 사람의 음악이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직업의 일꾼도 다시는 네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맷돌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이 다시는 너를 비추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가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상인들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마법으로 모든 나라가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느니라.” 4절부터 시작하여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구절의 음성에서 나오는 일련의 연설과 애도의 내용이 됩니다. 4.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환상이 아니라 이 이후에 시작되는 환상적 요소가 있으며 나는 또 다른 천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물을 보지만 그가 보는 것은 천사이고, 그가 보는 것은 오디션을 발화하거나 탄식과 연설을 담당하는 다양한 그룹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이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특징짓는 하늘의 음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디션, 이 모든 오디션이 반드시 연대순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받침하자면, 제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비록 천사가 요한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8장은 실제로 멸망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파괴의 결과와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파괴를 가정합니다. 그러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니라.

그녀는 악마의 집이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이 이미 또는 막 무너졌다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절에 요한이 다른 소리를 듣거든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바벨론이 아직 함락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4장부터 8장까지의 이 사건들은 바벨론이 멸망되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애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따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8장은 연대순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본질과 일련의 연설과 탄식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가정하지만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장은 예레미야 50장과 51장과 같은 이교 도시와 바벨론에 대한 구약의 심판의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니스웨나 두로에 대한 신탁은 모두 이제 멸망될 이 큰 도시인 로마 바벨론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나머지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의 나머지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에 따라 장의 나머지 부분을 간단히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약의 예언적 조롱 노래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1장과 9절이요. 이사야 21장과 9절은 바벨론에 대한 노래입니다. 보라,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탄 사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계시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로다.

그 신들의 형상은 모두 산산이 부서져 땅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1:9의 배경을 고려할 때, 여기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 행위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해 그곳은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의 이전 영광이 완전히 멸망되고 완전히 전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현재 마침내 황폐화되고 있는 큰 도시의 몰락을 묘사하는 역할을 하는 구약의 또 다른 본문은 이사야서 34장과 11절부터 14절까지의 또 다른 본문입니다. 이사야 34장은 열방에 대한 일련의 심판 신탁입니다. 이사야 34:11-14.

사막 올빼미, 부엉이 올빼미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둥지를 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측량줄이자 황폐의 자두줄인 에돔 위에 퍼실 것입니다.

그 귀족들은 왕국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녀의 왕자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가시가 그녀의 성채를 덮칠 것이다.

쌔기풀과 가시덤불이 요새입니다. 그녀는 자칼의 소굴이자 올빼미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막 생물은 하이에나를 만날 것입니다.

야생 염소들은 서로 울부짖을 것이다. 그곳에서 밤의 생물들도 쉬고 스스로 쉴 곳을 찾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요한이 로마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바로 이것이 본문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완전히 황폐화된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악마적인 존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종류의 불결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사막 황무지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파괴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악마적 존재들은 사막 지역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도시는 이제 황폐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3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창녀를 로마로 묘사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여자의 우상 숭배적인 경제 행위에 유혹을 받고 그 함정에 빠져 그와 간음을 범했습니다. 즉, 그들은 로마의 경제 시스템을 매수했고 이제 로마의 과도한 사치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연설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구약성서에서 큰 도시나 사람들의 몰락과 심판을 묘사하는 애도나 비탄의 연설일 뿐만 아니라 17장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자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다른 나라들을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은 나훔 3장과 심지어 이사야 23장에서 음녀와 간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음행과 간음의 언어를 외국, 외국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선동하고 다른 나라들을 꺾어 자기와 간음하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 로마가 지금 형벌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상업적인 우상 숭배 행위에 다른 나라들을 연루시켰습니다. 그러나 또한 로마는 그 자체로도 부를 소비하고 과도한 사치와 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이미 6장에서 로마가 유죄였거나 로마에 대한 판결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봉인 3, 예를 들어 3 또는 4, 봉인 3은 로마가 유죄라고 믿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과 부에 대한 탐욕, 과도한 사치를 위해 자신의 지방까지 착취했으며,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했고 심지어 다른 지방과 다른 나라도 착취했습니다.

나는 이미 요한계시록 18장에 대한 모델의 대부분이 예레미야 50장이지만 예를 들어 에스겔과 에스겔 27장과 같은 본문에서도 두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그 이유를 언급한 바 있는데, 아마도 두로에 초점을 맞춘 에스겔 27장은 주로 두로에 대한 경제적 비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 27장은 두로를 분명히 정죄하고, 두로의 경제적 착취와 지나친 사치 때문에 두로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기 18장에서 로마와 바벨론에 대한 요한의 비판에 적합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부의 과시, 과도한 사치와 과도한 소비에 대한 정욕과 목마름, 그리고 열방을 유혹하여 참여하도록 하여 정죄받습니다. 저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처음 세 구절에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될 이유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두 가지라는 점을 주목하세요. 첫째, 그들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둘째, 그의 받을 재앙들과 그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부르심, 요한이 소아시아 사람들이나 심지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독자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수행할 의도였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로마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그 제국은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했지만, 특히 2장과 3장에서 본 것처럼 커밍아웃은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녀의 우상 숭배적인 경제 관행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그녀에게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도시를 떠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녀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타협을 거부하고 순응을 거부하며 그녀의 우상 숭배적인 경제 관행에 참여하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구약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떠나거나 나오라고 요구하는 여러 본문이다. 그 중 하나는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본문인 예레미야 50장과 8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도망하고 바벨론 땅을 떠나라는 내용을 읽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인 이사야서 48장과 20절이 제가 찾고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8장과 20절, 바벨론을 떠나 바벨론인에게서 도망하라는 예레미야서 50장의 언어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사야서의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은 52장과 11절입니다. 떠나가라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본문도 역시 거짓말이라면 이사야 52장과 11절, 떠나라, 나가라, 또한 바벨론을 떠나라는 요한의 부르심 뒤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요한이 때때로 여러 구약의 본문을 결합하여 다음의 여러 본문을 암시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보았습니다. 한 번, 이사야 52장은 이사야 52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새로운 출애굽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바벨론을 떠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바벨론, 로마를 떠나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리고 새 창조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라는 부르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그 이유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한 일을 기억하신 것이라 저자는 말합니다. 16장에서도 일곱째 인 또는 일곱째 대접을 본 기억이라는 주제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목적으로 바벨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가 갑자기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맥락에서 다시 기억한다는 언어는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에 합당한 심판에 관한 구약의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미 본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한 나라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범죄에 적합한 판결의 법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꺾어 음행하게 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폭력으로 성도의 피를 흘렸으니 이제 그도 내어주리라 범죄에 합당한 판결. 그러나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저자가 처음에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두 배로 갚으라고 말할 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두 배의 부분을 섞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자가 자신이 한 일에 따라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니요, 조금 더 힘을 모아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두 배를 주자'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은 그의 논평에서 이것을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출애굽기 22장과 같은 구약성서의 본문을 반영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제안했는데, 대다수의 견해는 이것이 이중 형벌, 말 그대로 이중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 바벨론과 로마에 내리실 완전하거나 완전한 형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력을 느낀 또 다른 점은 double이라는 단어가 동등한 것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이 중복을 생성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거의 규모상으로 범죄가 한쪽에 있고 이중 처벌이 균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범죄나 형벌이 범죄에 적합합니다.

중복된 범죄입니다. 그것은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중 부분의 개념을 반드시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범죄한 대로 벌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요, 대신 두 배로 늘릴 생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동등한 것이나

중복된 것의 관점에서 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벌이 범죄와 일치할 것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히 형벌에 맞는 것은 이 섹션에서 발견된 범죄 모티프에 맞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다시 한 번입니다. 대부분의 연설에서 7절과 8절은 형벌의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7절과 8절, 특히 7절 끝부분에 내가 왕후로 앉았다고 마음속으로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부가 아닙니다. 즉, 저자는 이제 자신이 벌을 받게 될 범죄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이, 어, 나는 그녀의 마음 속에 여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여왕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부르짖음과 직접적인 모순과 반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는 내가 여왕으로 앉아 있다, 내가 내 보좌에 앉아 있다, 어, 만물의 여왕으로 앉아 있다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과 권세를 주장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자칭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어, 어, 게다가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어, 그녀는 과도한 사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에는 제국의 나머지 부분을 희생하면서 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어, 어, 로마는 지나친 사치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은 이기적으로 스스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폭력적으로 죽인 것은 죄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적인 경제 행위로 다른 나라들을 간음하게 만드는 죄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고, 신성한 능력과 권위를 관개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들로 인해, 이제, 어, 하나님은 바벨론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로마의 번영과 경제적 관행, 과도한 부로부터 이익을 얻은 지상의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렉서리.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어, 우리는 지금 애도의 노래를 부르고, 파괴를 애도하고, 로마의 심판과 몰락을 애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룹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멸망은 또한 그들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그들이 부유하게 되었던 것으로부터 이제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축적된 과잉 사치를 유지합니다. 즉, 9절부터 19절까지는 로마 음녀로 하여금 자기와 간음하게 한 자들을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경제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매춘부 로마의 유혹적인 부를 이용해 부자가 된 사람들. 이제 그 그룹들은 실제로는 일종의 장례식 만가의 형태로 두로에 대한 애도인 에스겔 27장에 근거하여 장례 만가의 형태로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은 이들 그룹이 로마의 멸망을 애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로마가 그들의 사치와 과도한 부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끊어졌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혹에 빠져 바벨론의 사치에 연루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유혹을 받아 그녀와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27장, 어, 에스겔 27장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단지 몇 개의, 어, 몇 개의 구절을 읽기 위해, 어, 2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arsha의 배는 당신의 파도와 상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바다 한가운데서 무거운 화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사공이 너를 바다로 데리고 나가려니와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산산조각 낼 것이니라

네 재물과 상품과 물품과 네 사공과 선원과 선공과 네 상인과 네 모든 군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네가 파선하는 날에 바다 가운데에 빠지리라. 네

선원들이 부르짖으면 해안이 흔들릴 것이다. 노를 잡는 자들과 배를 버리는 자들과 선원들과 모든 선원들이 해안에 설 것이니라.

그들은 두로가 무너지므로 너를 위하여 소리를 높여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릴 것이다. 우리는 그들 중 하나가 그렇게 하고 재를 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너 때문에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마음의 괴로움과 비통한 마음으로 너를 위하여 울 것이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울부짖고 애통하면서 너를 위하여 애곡할 것이다.

바다에 둘러싸인 티레처럼 침묵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상품이 바다로 나갈 때 당신은 많은 나라를 만족시켰습니다. 당신은 많은 재물과 물품으로 땅의 왕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바다에 부서졌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 네 상품과 네 일행이 다 바다에 빠졌나니 해안 지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공포에 떨고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느니라.

열국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니 너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는 요한이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의 모델이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애통과 탄식으로 반응하였으니 이는 두로와 같이 그 나라들이 두로의 부와 사치로 말미암아 부요하고 부유하였음이라 이제 요한도 이와 같이 바벨론과 로마의 멸망을 묘사하여 묘사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들도 로마의 부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이제 로마가 파괴되고 그 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도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세 그룹이 로마의 몰락과 멸망에 대해 애도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23회, 요한계시록 17:7-18:8, 짐승과 바벨론의 멸망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